

연구원 소식

2022년 연구원 주요 사업 안내

지난 3월 2022년 정기 이사회를 통해 최종 승인된 2022년 연구원 주요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종식과 더불어 3년만에 여러분과 함께 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연구원 사무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 문화기행

- 사업목표 : 연 2회 실시
- 대 상 : 회원 및 동반자
- 일 시 : 반기 1회
- 개 요
: 상/하반기 1회씩 20명 이내 소규모 집합행사로 문화기행 진행됩니다.

2) 지부별 지원 사업

- 사업목표 : 연중실시
- 대 상 : 회원 및 동반자
- 개 요
: 지부별 사업계획을 운영위원회에 심의하고 선정된 회원 소모임에 각각 예산을 지원하고 연중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3) 문화강좌

- 사업목표 : 연 6회 이상 실시
- 대 상 : 시민 및 회원
- 일 시 : 대면강좌 8월, 10월, 12월
- 개 요
: 개원 이래 연속사업으로 진행되었던 문화강좌를 비대면 형식으로 사전 녹화 후 콘텐츠를 제공하는 형태와 기존 문화강좌 형태를 병행해 개최할 계획입니다.

4) 개원 기념식 및 회원의 날

- 사업목표 : 연 1회 실시
- 대 상 : 시민 및 회원
- 일 시 : 9월 4일~5일
- 개 요
: 연구원 개원일인 9월 2일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9월 4일~5일, 양일에 걸쳐 개최하며 문화강좌 1회 배치, 회원의 날이 감염병 사태로 미개최 시 사업 예산을 회원대상 직접 서비스 제공 비용으로 이관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5) 동아리 지원사업

- 사업목표 : 연중실시
- 대 상 : 회원
- 개 요
: 회원 5인 이상으로 조직된 동아리의 사업계획을 검토/심사한 후 지역 편차 없이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지원. 지원 동아리 수는 4개 내외로 선정 지원할 예정입니다.

6) 콘텐츠 제작사업

- 사업목표 : 단행본 1종, 기념품 제작
- 일 시 : 2021년 연중
- 개 요
: 연구원에서 대중서 성격의 단행본을 발간해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비대면 동영상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작해 회원 및 시민과 공유하고 2023년 다이어리 또는 달력을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송경동

돌려 말하지 마라
온 사회가 세월호였다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세월호다
반토막 난 조국의 풍랑 많던 세월
그 세월 내내가 세월호였다
자본과 권력은 이미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평형수를 떨어냈다
사회 전체적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떨어내고
비정규직으로 불안정성을 주입했다
그렇게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노동자 세월호에 태워진 이들이 900만명이다
사회의 모든 곳에서
'안전'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어야 할 곳들을 떨어내고
그곳에 '무한 이윤'이라는 탐욕을 채워 넣었다
이런 자본의 재해 속에서
오늘도 하루 일곱 명씩 산재라는 이름으로
착실히 침몰하고 있다
생계 비관이라는 이름으로
그간 수많은 노동자 민중들이 알아서 좌초해가야 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이들이 지하 선실에 가두어진
이 참혹한 세월의 너른 갑판 위에서
자본만이 무한히 안전하고 배부른 세상이었다
그들의 안전만을 위한 구조 변경은

언제나 법으로 보장되었다
무한한 자본의 안전을 위해
정리하고 비정규직화가 법제화되었다
돈이 되지 않는 모든 안전의 업무가
평화의 업무가 평등의 업무가 외주화되었다
경영상의 위기 시 선장인 자본가들의 탈출은 언제나 합법적이었고
함께 살자는 모든 노동자들의 구호 신호는 외면당했고
불법으로 매도되고 탄압당했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한 자본의 이동은 언제나 자유로운 합법이었고
위험은 아래로 아래로만 전가되었다
그런 자본의 무한한 축적을 위해
세상 전체가 기울고 있고 침몰해가고 있다
그 잔혹한 생존의 난바다 속에서
사람들의 생목숨이 수장당했다
그런데도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
돌려 말하지 마라
이 구조 전체가 단죄받아야 한다
사회 전체의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이 처참한 세월호에서 다시 그들만 탈출하려는
이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이 위험한 세월호의
선장으로 기관장으로 갑판원으로 조타수로 나서야 한다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평형수로 에어포켓으로
다이빙벨로 긴급히 나서야 한다
이 세월호의 항로를 바꾸어야 한다
이 자본의 항로를 바꾸어야 한다

세월호 8주기, 잊지 않겠습니다.